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오늘은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이며,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고난당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참회와 절제의 시간으로 부활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가정예배 안내서를 활용하십시오.
- 사순절 연속기도를 3일(월)부터 8일(토)까지 진행합니다. 면담시간을 지켜주십시오.
- 고난주간 세족예배가 6일(목) 저녁 8시에 있으며, 세족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9일)은 부활주일이며, 저녁 7시부터 부활절 찬양예배(잔치)가 있습니다.
- 내일(3일)은 사랑방공동체학교 31주년 개교기념일입니다. 학교는 수업을 쉽니다.
-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목적헌금(2,301,000원)은 예정 총회에 전달하였습니다.
-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지역별사랑방 준비모임을 모입니다. 임원을 선출하고 부활절 찬양잔치와 첫 방모임을 의논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재훈 목사 · 장영미 사모 가정 ( 감사 )

권재만 목사 · 차태옥 사모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14 호

2023년 4월 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예수의 마지막 한 주간 사역

오늘은 교회력에서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지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절기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한주 전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기에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 혹은 수난주간이라고 하며 한 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루살렘 입성

(마21:1-11, 요12:12-19, 눅19:41)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잎이 많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앞뒤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외치며 환영합니다.

월요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심

(마 21:12-19, 막 11:11-18, 눅19:45-48)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내 쫓으시고 눈먼자와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화요일: 많은 비유로 가르치심

(마21:20-26:16, 요12:20-12:36)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와 부활, 성전의 무너짐, 재난과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 침묵하심

목요일: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마26:17-75, 요13:1-18:27)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며 열두명의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새계명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며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배반 할 것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 할 것을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유다가 무리와 함께 올라와 예수를 체포하여 대제사장에 넘깁니다.

금요일: 빌라도의 심문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마27:1-66, 막15:1-27, 눅23:1-56, 요18:1-42)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져 심문 받으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십니다.

토요일: 무덤에 계심(마27:62-66)

## 한주간 말씀

“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못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  
<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154 542 149 / 218  
기도 : 장미숙 권사  
성경 : 열왕기하 5장  
제목 : 나아만의 나병, 게하시의 나병

1-10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다  
10-14 나아만의 불평과 부하들의 조언  
15-19 나아만의 다짐  
20-27 게하시가 갖게 된 피부병

1.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기적(은혜)을 베푸신 이유  
해석: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 (이방인, 적)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적용: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정직하게 살자.
2. 게하시가 보여준 행동, 이스라엘 왕(여호람)의 모습  
해석: 엘리사가 많은 물질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 는 일로 대가를 받으면 그 은혜가 값없어지기 때문이다.  
적용: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것을 탐내서 가리지 말자.
3.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어린 소녀는 이방인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했다.  
해석: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적용: 내가 있는 곳에서 주위에 신앙의 유익이 있도록 하자. 신앙 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자.

## 교회 가는 길

생활공동체 일원이지만 밖에서 생활한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방공동체를 다니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처음 교회에 다닐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에 승합차를 기다립니다. 동생이 어머니께 매일 몸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교회 갈 때는 아프다고 안 하신다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으시냐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좋다고 하십니다.

밖에서 살다 보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출퇴근이 더 편해지고 시간이 여유로워진 것이죠. 반면 단점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제 하며 함께 일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밖에 있으니 자주 가기 힘들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무림리에 갈 일이 적어져서 주일이나 특별히 교회에 일이 있지 않으면 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활공동체 일원으로서 많이 같이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미안한 마음입니다.

무림리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나, 올 때 이용신 장로님이 운전하시는 무림방 어르신들이 타는 승합차에 같이 타고 가게 됩니다. 타고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서로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시면 서로 걱정해주시고 위로 해 주시며, 김형배 집사님의 농담으로 언제나 즐겁게 교회 가시는 모습을 보곤 하죠. 그럴 때마다 나는 저렇게 항상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고, 내가 저 연세가 되어도 교회 가는 길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 가는 길은 이용신 장로님의 운전으로 편안하고, 무림방 어르신들의 즐거운 마음에 저도 덩달아 즐거움을 느끼면서 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용신 장로님과 무림방 어르신들의 건강을 하나님께 빌어 봅니다.

예배공동체 이승호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노란 꾸러기학교차에는 송우리에 사는 어린이 세 명이 함께 탑니다. 전에는 꾸러기들이 앞에 어린이들이 뒤에 앉았는데 서로를 궁금해해서 이번 주 부터는 어린이들이 한 줄에 한 명씩 들어가며 앉고 그 옆에 꾸러기들이 앉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옆에 앉은 꾸러기들과 얘기도 하고 끝말잇기나 목찌빠 등을 하며 함께 놀입니다. 어린이들과 노는 재미에, 차를 타면 자던 어린 꾸러기도 잠을 잊고, 노느라 바빠 엄마를 만나도 아쉬워하며 내리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꾸러기들은 점심시간을 좋아합니다. 점심이 맛있고 어린이들도 볼 수 있어서입니다. 어린이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아는 언니 오빠들을 찾느라 눈이 바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꾸러기들을 보러 여러 손님들이 오십니다. 공동식사를 마치신 어르신들이 들르시기도 하고 멋쟁이 선생님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어는 날인가부터 멋쟁이 언니들도 한둘씩 선생님을 따라 오더니 금요일에는 멋쟁이 3학년 언니가 네 명이나 와서 한참을 꾸러기들과 놀다갔습니다. 언니들과 실뜨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뛰어놀기도 하는 꾸러기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신나보입니다. 기분 따라 목소리도 엄청 커져서 귀가 상할까 단속을 해야 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바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개나리가 피었는지... 목련이 피었는지... 진달래가 피었는지.... 이러다 눈을 떠 보니 4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3월을 보내기 아쉽다는 생각에 3학년 친구들이랑 산으로 가서 진달래랑 개나리랑 꽃 잎 몇 장씩 따서 가정에 보내어 꽃 비빔밥 만들어 먹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 했더니 예쁜 접시에 꽃잎 한 장씩 올려 보내왔는데 얼마나 예쁘고 흐뭇하든지요~^^

배움과 가르침

미세먼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축구도하고 트램펄린도 탄답니다. 먼지가 많이나서 물을 뿌려주니 더 신나서 다음날부터는 자기네들이 물을 뿌리고 축구를 합니다. 귀여운 녀석들~

월요일에 한복을 입고 축구를 하면 왜 안되는지에 대해 불만(?)이 있던 친구들이 있어 교장 선생님께서 어린이학교의 정체성 공동체성, 한복을 입는 이유와 바른말에 대해 얘기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만들어 보기, 일기를 쓰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학교에서 겸손하고 배려하는 삶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였습니다.

3일(월)에는 사랑방공동체학교 개교 기념일로 휴교 합니다.

4일(화)에는 공동체 식구들 모두 구충제를 복용 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함께 복용을 하셔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 멋쟁이학교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멋쟁이 모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학생 자치회를 통해 오전 금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멋쟁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요일에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를 주제로 진행 중인 공동심화 수업의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여섯 모듬으로 나누어서, 파주 영어마을, 고양 중남미문화원, 양평 아프리카 문화 예술 박물관, 안산 땃골마을, 인천 차이나타운, 이태원 이슬람 성원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각 문화권의 음식을 맛보고, 한국 속 다양한 세계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는 사랑방공동체 학교 31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월요일 저녁에 등교합니다.

< 교사 : 장성아 >

## 물오름달에 만나는 행복

4월의 첫날~

공동체 앞마당에는 봄의 전령들이 여기저기서 새싹과 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실 앞에서는 단풍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막 싹을 틔워가고 있고 그 옆에 노오란 산수유가 만개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밝은 인사를 합니다. 산수유나무 밑에는 상사화, 컴프리, 원추리, 머위가 한 뼉씩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지나치려니 머위꽃이 양증맛게 피어서 눈길을 잡습니다. 감탄하며 사진을 찍어주었지요.

자연예배당 앞 사랑방 약속 돌판 앞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노란 수선화가 무리 지어 피었고, 그 앞 켠에 작년에 꽃꽂이 권사님이 심었던 툄립이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단단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차례에 필 주인공이에요. 신품종이라니 기대하세요.

아영이네 창문 앞에는 작약이 자줏빛으로 곧게 올라와 있고 한 켠에 히야신스가 꾸러기 손만한 크기로 피어있어서 어~머~나~! 했어요.

몇 발자국 떼니 목련 나무인데 털모자를 벗고 우윳빛깔로 피어있습니다. 꽃 차 하기 딱 좋은 모습이지만 눈으로 푸지게 이쁜 맛을 다 보았습니다. 그 밑에 수선화들이 노랗게 피었는데 아주 아주 절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는 입 모양 같아서 전율이 왔습니다.

사택 앞은 세상에나~ 미니 가든이 생겼어요. 복사꽃부터 운간초, 팬지, 철쭉, 비덴스, 송엽국, 데이지, 버베나등이 심하게 이쁜 모습들입니다. 공동체의 봄꽃 명소가 되겠어요^^

작은 축구장 옆에는 왕 벚꽃이 한참 늘어지게 피고 있고, 아래에는 무림방 어르신들이 심은 홍화꽃, 개미취등이 손가락만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트램블린 옆에는 자두나무, 살구나무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네 옆에 얼마 전에 세운 장막이 마무리 전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공동체 식구들의 쉽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난 새싹들과 꽃들이 앞으로 어떻게 피어날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지 알기 때문에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생활공동체 그루터기사랑방 정혜정 권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37장, 539장

성경 : 마태복음 11:25~30

말씀 : 멩에를 매자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인공지능 기술>  
다양한 곳에서 혁신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인간소외와 도구화, 범죄에 사용되지 않고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의 미래세대>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 정신을 가진 중요한 인력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추워진 날씨, 꽃샘추위 중에도 공동체원들이 건강 할 수 있도록, 멩쟁이들이 연속기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 < 생활공동체 소식 >

봄꽃들이 너무나 반갑게도 공동체에 만발합니다. 다양한 색으로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서 공동체 식구들의 다양한 모습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간 마당에 있던 텐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몽골 텐트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쉽과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화단에 가득 쌓인 낙엽도 치우고 죽은 잡초도 제거하여 식물들이 잘 올라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으로 연속 기도회가 있는데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쌓여진 낙엽과 잡초들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부활절을 더욱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